

## 정권교체와 발전노조의 비전

쫓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는 재벌 친화적인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이며,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정부 출범 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에너지산업 역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력발전 5개사로 구성된 발전노조, 그 비전에 대해 5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편이다.

- ①전력산업의 전망
- ②발전현장의 비정규직
- ③공기단축, 휴일노동을 철폐해야 노동자의 삶이 바뀐다.
- ④노동조합의 가치
- ⑤노동자의 자존감

### ⑤노동자의 자존감

**사과, 배, 토마토** “노조원의 성향을 속까지 하얀 배,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조파괴를 위한 한 공기업의 집요한 행태인데요.” 2011년 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메인으로 동서발전 사측의 노조파괴 만행이 보도되었다. 조합원을 ‘사과, 배, 토마토’로 성향을 분류하고, 노조탈퇴에 반대한 조합원은 근무지를 이동시키고 인센티브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측이 민주노총 탈퇴 찬반을 묻는 투표함을 불법 개봉까지 시도하다 실패했다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뉴스데스크 보도 이후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발전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연일 기사화 되었다.

#### 동서발전 추진계획(Plan B)

보낸사람 : "박노준" <trex@ewp.co.kr> 주소록에 추가

보낸날짜 : 2010/11/30 화요일 오후 4:38:38

받는사람 : "박은복" <sunshine2000a@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1 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추진계획(Plan B).hwp [1.51MB]

죄송합니다

투표를 가결시켰어야 했는데.....

"Plan B" 추진일정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발전5사는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서부, 남부, 중부, 남동발전에 이르기까지 [동서발전 본사 노무차장이 경찰에게 발송한 메일(2010년 11월 30일) 민주노총 탈퇴 부결을 경찰청에 사과하고, 회사노조 설립 계획을 보고]

경쟁하듯 부당노동행위(인사이동, 발전노조 탈퇴 강요, 초급간부 전형 및 근무평가 차별)를 자행하였고, 결국 5개 발전회사 모두 사측의 주도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었다.(2010~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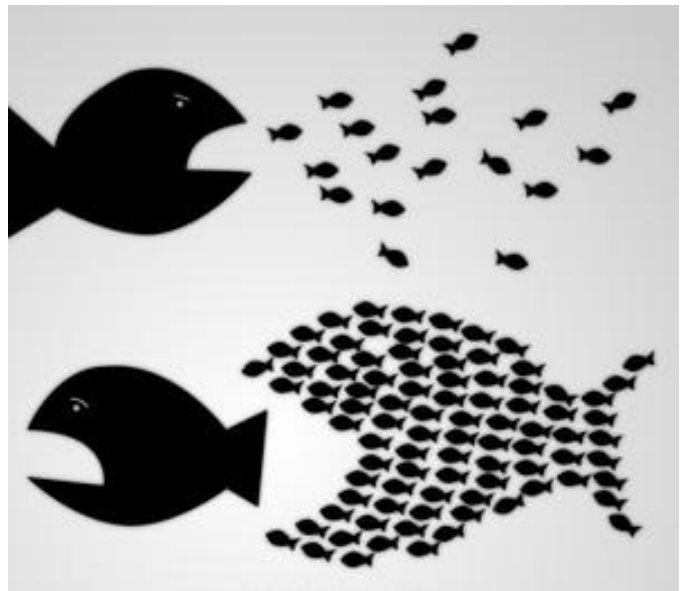
**발전노조 탄압의 이유** 발전노조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조직이다. 민주노총은 자본에게 노동자의 영혼을 팔지 않는 강성노조로, 노동자를 죽이는 재벌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또한 발전노조는 ①조합원을 배신하지 않는 민주노조로서 ②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명확한 입장과, 이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③활발한 연대투쟁으로 민주노조 확장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경찰까지 동원하여 발전노조 파괴를 주도하였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알짜 공기업 민간매각을 시작하고 있었다.(2009년)

**기업별 노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기업별 노조도 스스로 과거 집행부와는 다르다고 한다. 과연 정권과 사측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적 노동조합이 되었을까? 최근 모 기업별 노조의 '4직급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서'를 보면 기업별 노조, 그 태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사장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 본인과 사측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직무급제 도입을 열어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별 노조의 간부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노동자를 노예로 팔고 있다.

**자기반성** 발전현장의 노동자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한 자신의 신념마저 강탈당했다. 발전회사의 경영진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기업별 노조를 만들었고,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발전노동자는 민주노조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발전현장은 사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사측의 탄압이나 어용노조의 간부가 아니다. 문제는 무관심이다. 아무도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변한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다. 순간의 이익에 넘어간다면 또 다시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정권이나 사측이 아니다. 노동자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내부의 추악함과 탐욕이 발전현장을 그렇게 만들었다.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이 발전현장을 사측과 어용노조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한 말은 금세 잊혀 지겠지만 우리의 행동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것이다.



**Union is strength.**